

기아차 광주공장 감산·백화점 휴점...지역 경제 '직격탄'

모임·회식 줄어 음식점 등 외식업체 타격 불가피
헬스장·숙박업소 손님 '뚝'...자영업·소상공인 피해 확산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매출로 직결되는 대형유통매장은 매출 감소가 볼 듯 뻗은 데다, 백화점 업계는 이례적으로 휴점 결정까지 내렸다. 그동안 다소 잠잠했던 외식업체 역시 확진자 발생 이후 모임과 회식이 급격히 줄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고, 헬스장과 숙박업소 등도 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산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감산에 들어갔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 제조기업들도 신종 코로나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0일 하루 휴점하기로 결정했다. 백화점의 경우 2월에는 휴점 없이 영업을 해왔으나, 신종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위해 이례적으로 휴

점을 택했다. 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날부터 29일 까지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임시 휴강하기로 했으며, 광주신세계도 이날 영유아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강좌는 조기 종강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광주에서 발생한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괴소문까지 나돌면서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 광산구 일대 상권은 유독 피해가 큰 상황이다. 현재 맘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확진자가 롯데 아울렛 수원점 직원이다', '동네의 한 사우나를 다녀갔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유언비어까지 겹쳐 추후 매출 급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전남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은 최근 15일간 각각 1.5%, 5% 상당 감소



광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는 방학기간임에도 예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이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19개 영화관을 찾은 관객 역시 30만98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만9929명) 보다 20.5%(8만 명) 줄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유통·외식업계를 넘어 자동차와 제조업 등 지역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감산에 들어갔고, 추후 생산량이 줄면 지역 협력업체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배선 장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붕괴력을 생산하는 3공장이 감산에 들어갔다.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와이어링 하니스는 자동차 조립 초기, 차량 바닥에 혈관처럼 깔아야 하는 부품이다. 차종·모델에 따라 종류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재고를 많이 쌓아두지 않는다.

와이어링 하니스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주력 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휴업 연장에 따라 부품 생산과 국내 공급이 끊긴 상태다.

아직 재고가 남아 이번주까지는 생산 중단 조치는 없지만, 다음주 재고가 소진되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기아차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주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재고가 소진되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생산이 줄어 지역 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국 외 지역 입국자 건강체크 강제 못해 '검역 구멍'

오염지역 중국만 지정 한계

4일 발생한 광주 첫 확진자가 태국 여행 마치고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안공항도 비상이 걸렸다. 태국에서의 2차 감염 첫 사례라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도 감염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유일하게 중국만을 지정, 태국 등 제3국 방문 여행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 관련 건강체크리스트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태국에서의 감염이 확실한 경우 동남아가 '검역 구멍'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 19일 오전 8시 제주항공 비행기로 무안공항에 도착했으며, 당시 비행기 안에는 탑승객 166명, 승무원 6명 등 172명이 동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잠복기가 짧게는 2일, 길게는 14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고열 등 이렇다 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승무원 등 항공사 관계자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 안이나 공항이 아니라면 이번 확진자의 감염 장소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 태국으로 볼 수 있다. 사실이라면 이번 확진자는 오염지역이 아닌 곳에서 감염된 첫 사례로, 정부의 검역체제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당장 무안공항의 경우 운항이 중단된 중국 노선 3개를 제외한 14개 노선이 운항 중이다. 태국 방콕(주 4회)을 포함, 베트남 다낭(주 7회), 대만 타이베이(주 5회), 필리핀 세부(주 5회) 등이다. 동남아 위주 노선으로 모두 합치면 주 50회 국제선이 운항 중이며, 이들 지역에서 모두 중국 관광객들과 접촉이 가능하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 무안국제공항 검역지소는 광주 첫 확진자가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무안공항 검역지소는 입국자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를 2대 운영 중이나, 광주 첫 확진자 입국시 고열 등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이다. 열감지 카메라는 표준 체온인 섭씨 36.5도보다 1도 이상 높으면 신호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일본에서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한 지역이 중국으로 한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4일 무안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검역장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적된다. 일본 검역소는 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여행하고 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건강체크리스트(답변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지역으로는 오직 중국만 지정돼, 태국 등 중국 이외의 국가 여행객에게는 건강체크리스트 작성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본 무안공항 검역지소 관계자는 "태

국에서 2차 감염자가 나와서 일본에서도 적잖이 당황하는 상태다. 확진자 규모 등이 한국과 태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여행자가 감염될 확률이 작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후순위로 등을 감안해 태국 방문 입국자에게 건강체크리스트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오염지역 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국 정부 당혹... "한국에 정보 요청"

한국에서 16번째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환자가 태국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태국 정부 및 국민 사회가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4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보건당국은 태국 여행력이 있는 40대 한국 여성이 신종 코로나 환자로 판명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타나락 블리팟 질병관리국 사무부총장은 관련 뉴스를 접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및 현재 상태 고

리고 태국 내 어디를 다녔는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타나락 사무부총장은 이런 정보가 있어 야지만 이 환자와 접촉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로 태국 내 신종 코로나 위험 등급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찾아내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내에서 이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우한 코로나 환자 수 축소 발표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중국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환자 수 공식 발표가 실제보다 훨씬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4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만438명, 사망자는 425명이라고 발표했다. 우한 내 확진자는 6348명, 사망자는 313명이었다.

하지만 호흡기 전문가인 데이비드 후이

홍콩중문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우한의 공식 통계는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후이 교수는 "홍콩에서는 경증의 환자라도 즉시 검사를 해 판정을 내리지만, 우한에서는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만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며 "공식 통계에는 이러한 환자들만 반영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내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은 의심 환자에 대한 두 차례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야만 내려진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아파트 행안동 제일풍경채 16층 94㎡ 조방·일조권 최고 3억3700
- 카페 등 적합 화순 도곡면 호신리 땅 940㎡ 집 92㎡ 4억6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6층 정남향 리모델링 완료 즉시입주 1억1800
- 북구 임동 소방도점 주차터 298㎡ 원룸 등 적합 4억6500
- 서구 양동 광주천변 부근 상업지 땅 347㎡ 다세대·원룸 등 적합 5억5600
- 담양 월산면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 가능 1억5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음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악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양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교개 땅 403㎡ 가계 197㎡ 카페용·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충장로477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목포시 대양동 1중주거지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무안군 상항읍(전남도청 건너편) 신세계 프라자 1층 67㎡ 자영업 적합 4억4천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민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별장 대를교환 가능 은행 3억 전세 1억 매도 6-7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구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 /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졸업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교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졸업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교급반)
모집 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 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가맹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곡): 010-3614-4160 <p>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곡): 010-3614-4160 <p>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p>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증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성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